클레르몽페랑

‘일반적’ 인 것이 아닌 ‘참신’ 한 것

클레르몽페랑 단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



김 호 영 · 영화평론가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 공식포스터

올해로 26주년을 맞는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 단편영화제는 단편영화계의 칸 영화제라 불릴 만큼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단편영화제 중 하나이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개최되는 영화제 기간 동안 해마다 13만명 이상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이곳에 몰려들며, 평균적으로 200여 편의 영화들이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시내 곳곳의 영화관에서 상영된다. 그런데 이처럼 전세계 단편영화인들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클레르몽페랑시(市)는 예상과 달리 프랑스 중부의 한 작고 조용한 도시이다. 물론, 오베르뉴(Auvergne) 지방의 거점 도시로 예전부터 지역의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칸, 베니스, 베를린 등 유수의 장편영화제들이 상영되는 다른 유럽 도시들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차분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지녔다. 유럽의 겨울답지 않게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던 2월 초순, 이 도시를 다녀왔다.

씨네클럽의 작은 영화축제에서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프랑스 마시프 상트랄(Massif Central) 고원지대의 입구에 자리잡은 클레르몽페랑시는 1월 중순이 넘어가면 벌써부터 각국에서 몰려든 영화인들과 취재진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1월 말에 영화제가 시작되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극장들은 영화제의 출품작들을 관람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들로 가득 메워진다. 특히, 오후 퇴근 시간 이후로는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해 저녁 시간대의 영화들은 미리 예매하지 않은 경우 표를 구하기 힘들다.

도시 곳곳의 카페와 레스토랑도 전세계에서 몰려든 영화인들로 하루종일 번잡하고, 도시의 중심지인 조드(Jaude) 광장 주변은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며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1년 내내 이렇다 할 행사없이 조용하기만 한 이 도시에서 단편영화제는 이미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의 규모는 출품된 영화들의 숫자와 영화제의 프로그램만 훑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총 186편의 영화들이 본선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중 세계 50여 개 국에서 2,9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된 국제 경쟁부분에는 최종적으로 80편이 본선에 올랐다.

그리고 1,20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된 국내(프랑스) 경쟁부분에는 60편이 본선작으로 결정되었으며, 디지털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실험영화(Labo) 부분에는 46편의 작품이 선보였다. 그 밖에도, 비경쟁부분에는 브라질 영화 특별전, 프랑수아 트뤼포 감독의 회고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최고의 권위와 규모를 자랑하는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의 시작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소박하다. 영화제의 시작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이 도시의 한 씨네클럽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발족한 작은 페스티벌이 바로 영화제의 전신이 된다.



영화제 출품작만을 상영했던 작은 소극장(시네마 르 파리)

1970년대 중반부터 계절마다 한 가지씩 특별한 주제를 정해 서부영화 주간 · 스페인 영화 주간 · 단편영화 주간 등을 개최해오던 이들은 그중 단편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단편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은다.

그리고 곧 '단편영화 구하기(Sauve qui peut le court metrage)' 라는 단체를 만들어, 단편영화제 개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 그런 노력 끝에 1979년에 개최된 첫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에는 1,200명의 관객들이 다녀갔다. 주제에 따라 대여섯 편의 단편영화를 한데 묶은 프로그램을 하룻밤에 한번씩 상영하는 조촐한 규모의 영화제였다.

하지만, 첫 영화제가 개최된 후 클레르몽페랑 영화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갔다. 클레르몽페랑시는 적극적으로 영화제를 지원하고 나섰고 지역의 여러 단체들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유럽 각국의


영화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관객들

Clermont - Ferrand

지금까지 클레르몽페랑 영화제를 통해 배출된 유명 감독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부는 변함없이 단편영화만을 다루며 단편영화계의 거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또 일부는 장편영화계로 진출해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기도 했다. 특히, 이 영화제가 배출한 유명한 장편영화 감독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영화제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원봉사중인 한 배우. 출품작 〈거리의 변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영화 관련 단체들로부터 참가문의가 쇄도해, 영화제는 빠르게 국제적 성격의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 결국 영화제 개최 10여 년만에, 지역 주민들의 영화동호회 모임에서 비롯된 한 작은 영화제는 매해 50여 개국에서 출품된 4,000여 편 이상의 영화들을 심사하고 2백만 유로(약 30억)의 경비가 소요되며 17명의 공식직원이 필요한 명실상부한 국제 규모의 영화제로 발전한 것이다.

영화제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에는 물론 창단 멤버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막대한 시간 투자가 주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영화인들과 영화애호가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사안을 찾아내 곧바로 실천으로 옮긴 클레르몽페랑 영화인들의 참신한 발상이었다. 모두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미처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시도한 이들의 뛰어난 상황 인식이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영화제를 낳게 만든 것이다. 또한,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보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표현에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영화적 사고를 일관되게 지향한 영화제의 성격도 영화제의 품위를 지키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단편 영화들이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화제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클레르몽페랑의 한가한 거리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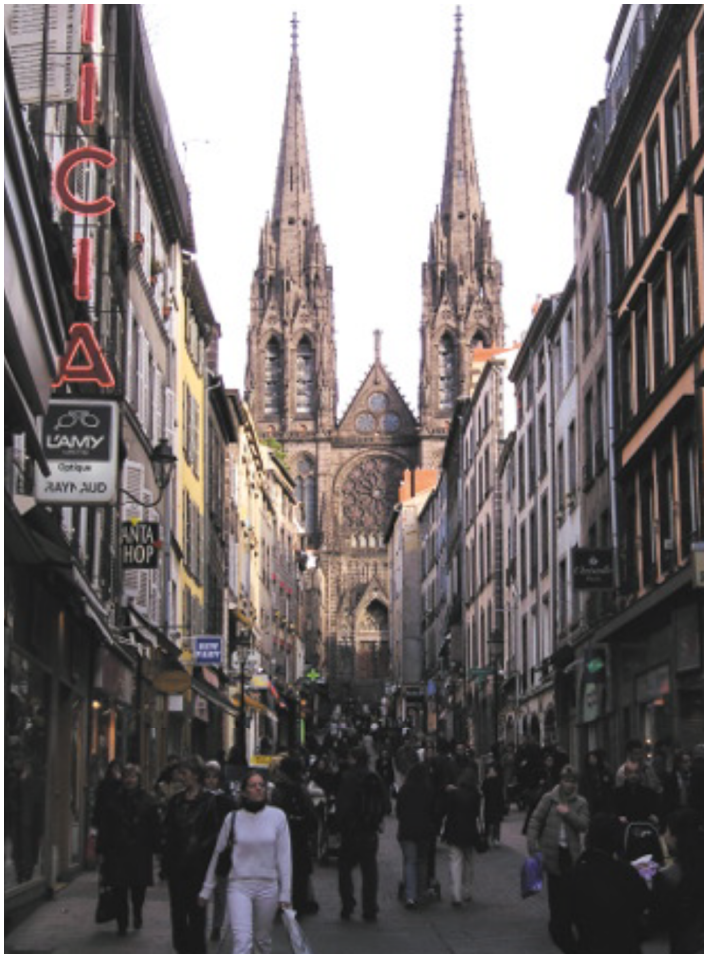


한국 단편영화들의 경향

사실, 지금까지 클레르몽페랑 영화제를 통해 배출된 유명 감독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일부는 변함없이 단편영화만을 다루며 단편영화계의 거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또 일부는 장편영화계로 진출해 세계적인 지명도를 얻기도 했다. 특히, 이 영화제가 배출한 유명한 장편영화 감독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영화제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991년 〈토토의 천국 : Toto le heros〉을'통해 탐미적인 영상과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전세계의 영화팬들을 사로잡았던 벨기에의 자코 반 도마엘(Jaco Van Dormael) 감독은 바로 1985년 〈잠재된 열정 : E Pericoloso Sporgersi〉이라는 단편영화로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 있다. 또, 2001년에 〈아멜리에 : Le fabuleux destin d'Amélie Poulain〉로 엄청난 흥행 성공을 거두었던 장 피에르 주네(Jean-Pierre Jeunet) 감독 역시 1989년에 7분짜리 단편 영화 〈하찮은 일 : Foutaises〉로 이 영화제에서 관객상과 언론상 등을 수상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었다. 두 감독 모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영상미학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즉, 이들의 독창적인 영상 표현과 자유로운 상상력이야말로 클레르몽페랑 영화제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특성인 셈이다.

이에 비해, 이번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의 본선에 오른 네 편의 한국 단편영화들은 다소 평이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원신연 감독의 〈빵과 우유〉, 오점균 감독의 〈생산적 활동〉, 이형석 감독의 〈호흡법, 제2장〉, 박현경·김운기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배낭을 멘 노인〉은 모두 세계 어느 나라의 영화와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깔끔하고 안정된 만듦새를 보여주었다.

연출력과 기술적 솜씨가 뛰어났고, 각자 나름대로 강한 주제의식도 표출해냈다. 그러나 네 영화 중 어떤 것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을 끌만큼 새로운 표현이나 실험적인 기법을



클레르몽페랑 시내모습

Clermont - Ferrand

프랑수아 트뤼포 회고전이 열린 전시장-실내



클레르몽페랑 시내모습

보여주지 못했다. 네 편 모두 '잘 만든' 작품이지만, '독창적'이거나 특별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국 영화사측에서는 영화의 포스터를 제작해 관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영화제 내내 이렇다할 주목을 끌지 못했고 물론 수상작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다. 현지 언론의 반응을 종합해봐도, 네 편 모두 잘 만든 교과서 같은 작품이지만 특별한 점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영화제에 나타난 단편영화의 독자성과 가능성

요컨대, 이번 영화제의 한국 출품작들은 영화제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단편영화라는 장르에 대해 다소 상식적 수준의 안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모범적인 작품보다는 창조적인 작품을, 영화의 모든 기재를 잘 다루는 '장인'보다는 창조적인 사고를 시도하는 '작가'를 발굴해내는데 주안점을 두는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오늘날 클레르몽페랑 영화제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단편영화제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영화제 담당자들이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미래의 작가 감독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영화제에서 수상한 유일한 한국 영화인 변혁·이재용 감독의 〈호모 비디오쿠스〉(1993)가 다소 거친 기술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상상력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나아가, 이제 한국 영화계도 단편영화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 단편영화를 단지 영화 수련생들의 견습과정으로만 보는 인식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소설에서도 단편 소설이라는 장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단편 영화가 이제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단편소설이 함축적이고 간결한 형식으로 장편 소설이 표현해내지 못한 것들을 담아내는 것처럼, 단편 영화도 장편 영화가 표현해낼 수 없는 독특하고 고밀한 영화형식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장편영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렴한 제작비 덕분에, 단편영화는 영화의 영원한 딜레마인 '자본'의 구속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운 만큼, 새롭고 다양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예술 양식으로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수아 트뤼포 회고전이 열린 전시장-실외

영화제에서 한가지 더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단편영화는 비상업적이라는 편견을 깨뜨려준 활발한 영화매매 현황이었다. 클레르몽페랑시의 문화원 뒤편에 마련된 상설시장은 영화제 내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전체 거래량에서 영화사가 직접 필름을 사들이는 경우는 예년과 비슷하게 올해에도 20% 수준에 머물렀지만, 각국의 TV제작사, 영상중개업자, 인터넷 매체들이 독창성 넘치는 단편영화들을 앞다퉈 계약해갔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단편영화에 대한 저변이 부족해 단편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매체가 지극히 한정돼 있지만, 서구에서 단편영화는 이미 하나의 훌륭한 문화상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클레르몽페랑 단편영화제를 참관하는 동안 필자의 머리 속에 줄곧 맴돌았던 생각은 우리와는 많이 다른 서구 단편영화의 위상이었다. 이미 하나의 예술작품이자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은 서구 단편영화의 현실은, 오로지 관객 숫자만을 목표로 삼는 대중영화의 물결에 눌려 제자리를 못

Clermont - Ferrand

클레르몽페랑 시내모습



찾고 있는 우리 단편영화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또 한가지, 프랑스의 한 작은 도시의 씨네클럽의 활동이 이렇게 큰 국제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그저 놀랍기만 했다. 영화시장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화를 진지하게 감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은 어디에서든 참신한 기획을 만들어내고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새롭게 이루어낼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의 반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김기덕 감독의 베를린 영화제 수상과 한국 영화의 향방

클레르몽페랑에서 파리에 올라와 며칠을 더 머무르고 있던 즈음, 프랑스 TV를 통해 김기덕 감독의 베를린 영화제 감독상 수상 소식을 접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해외영화제의 본선에 오르면서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아오던 김기덕 감독이 마침내 열번째 작품인 〈사마리아〉를 통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에 해당하는 은곰상을 수상한 것이다. 파리의 한 호텔 방에서 저녁시간 내내 여러 TV채널을 옮겨다니며,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리거나 시상대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다. 먼 이국 땅에서 한국 영화의 쾌거 소식을 직접 접하는 기쁨도 남달랐지만, 그보다도 오랫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오해와 편견에 시달려온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마침내 세계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는 것 같아 한없이 흐뭇하기만 했다.

사실, 필자는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 지면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옹호했었다. 그의 영화가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고의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일부 평론가들에 의해 상처받고 또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주류 영화계에서 소외되는 실정이 안타까워서였다. 물론 더 나아가, 한국 영화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영화만의 독특한 영상미학을 밝히고자 했고, 지금도 지지한다. 그는 우리 나라에서는 드물게 언어기호가 아닌 이미지기호에 의거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화의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영화는 한국에서 너무나 경시되었었다.

그러나 이번 베를린 영화제의 감독상 수상이 시사하는 것처럼, 세계 영화인들은 일찍부터 그의 영화의 남다름에, 독창성에 주목해왔다. 세계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영화가 오래 전부터 입증해 온 것이다. 비단 세계적인 것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영상매체가 이미 현대인의 보편적인 표현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모범답안 같은 일반적인 작품을 너머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영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감독만이 앞으로는 진정한 예술가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클레르몽페랑 영화제에서 보았던 단편영화들과 김기덕 감독의 영화들 사이를 잇는 공통점이 어쩌면 우리의 단편영화계 뿐 아니라 장편영화계 전체에도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Clermont - Ferrand